



"눈 먼 장님은 서울을 가도 말 못 하는 병어리는 서울 못 간다"

뜻: 길을 모를 때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입으로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,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된 말 비교 · 우위 · 소통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눈	↘	먼	↘	장	님	은	↘	서	울	을		
가	도	↘	말	↘	못	↘	하	는				
병	어	리	는	↘	서	울	↘	못	↘	간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눈	↘	먼	↘	장	님	은	↘	서	울	을		
가	도	↘	말	↘	못	↘	하	는				
병	어	리	는	↘	서	울	↘	못	↘	간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↘		↘				↘					
		↘		↘		↘						
			↘			↘		↘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ㄴ][ㄹ][ㅁ][ㅂ][ㅅ][ㅇ][ㄷ][ㄱ][ㄴ][ㅎ][ㅁ][ㅂ][ㅅ][ㅇ][ㄷ][ㄱ]

웹에서 보기

